AI 유튜브 대본,
말투가 매번 다른 이유

프롬프트를 아무리 고쳐도 달라지는 이유,
15분 만에 직접 확인합니다



FREE

AI-NOTE

목차

오프닝 4

1장. 프롬프트가 매번 달라지는 진짜 이유 5

왜 같은 요청인데 결과가 매번 다를까 5

AI는 내 채널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7

1장 마무리 10

2장. 내 AI 활용 방식을 직접 진단한다 12

지금 내 방식의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는가 12

직접 체험하기 - LLM 지침 체험 13

2장 마무리 17

에필로그 18

부가 정보 19

AI-NOTE 저자 소개 19

저작권 및 법적 고지 19

AI 유튜브 대본, 말투가 매번 다른 이유

프롬프트를 아무리 고쳐도 달라지는 이유, 15분 만에 직접 확인합니다

더 좋은 프롬프트를 찾는 걸 멈추기 전까지, 같은 문제는 반복됩니다.

AI-NOTE, 오답노트

FREE 2026년 7월

Copyright © 2026 AI-NOTE. 오답노트. All rights reserved. / 무단전재·복제 금지

오프닝

어제 만든 대본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문장의 호흡도 좋았고, 화자의 말투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물의 말투가 어제와 다릅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면 요청 문장이 부실했나 보다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 자세히 씁니다. 원하는 분위기를 덧붙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적고, 예시까지 넣습니다. 프롬프트는 점점 길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을 어디에 저장해 뒀는지조차 헷갈립니다.

며칠은 잘 됩니다. 그러다 또 흔들립니다. 그 시점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내가 아직 프롬프트를 잘 쓰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더 긴 프롬프트를 씁니다.

이 책은 프롬프트를 더 잘 쓰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프롬프트의 품질이 아니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원인을 잘못 짚은 상태에서는 노력의 양이 결과를 바꾸지 못합니다.

1장에서는 같은 요청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구조적인 이유를 확인합니다. 2장에서는 그 문제가 내 작업 방식의 어느 지점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직접 진단하고, 짧은 실습 하나를 수행합니다. 두 개의 장을 지나고 나면, 지금까지 반복해 온 시도가 왜 매번 같은 자리로 돌아왔는지 알게 됩니다.

1장. 프롬프트가 매번 달라지는 진짜 이유

왜 같은 요청인데 결과가 매번 다를까

같은 요청을 했는데 결과가 다르면, 가장 먼저 의심하게 되는 것은 요청의 내용입니다. 내가 어제와 다르게 말했거나, 빠뜨린 조건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쓴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 넣어도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문제가 요청의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프롬프트는 매 회차의 첫 입력값입니다. 대화창에 입력하는 순간부터 존재하고, 그 대화가 끝나면 사라집니다. 저장되는 것은 내 컴퓨터의 문서 파일이지, AI가 일하는 환경이 아닙니다. 프롬프트는 규칙이 아니라 일회성 명령입니다.

그래서 새 대화창을 열 때마다 AI는 나와 처음 만나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어제 세 번의 수정을 거쳐 겨우 잡아 놓은 말투는 어제의 대화창 안에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대화창에는 그 과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결과가 좋았던 이유는 좋은 프롬프트를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대화 안에서 수정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수정을 반복해서 얻은 결과는 재현되지 않습니다. 대화창을 닫는 순간 그 과정 전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매일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면, 그것은 매일 같은 수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한계입니다. 세션이 끝나면 모든 것이 리셋됩니다.

두 번째 한계는 하나의 대화 안에서도 발생합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처음에 입력한 규칙이 뒤로 밀리면서 점점 흐려집니다. 이 현상을 'Context Drift'라고 부릅니다. AI가 규칙을 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길어질수록 초반의 지시가 상대적으로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긴 회의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회의 시작 때 정한 원칙은 30분이 지나면 아무도 다시 언급하지 않습니다. 원칙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뒤로 갈수록 그 자리를 눈앞의 논의가 차지합니다. 긴 대화 속의 프롬프트도 같은 경우입니다.

이 현상이 실제로 느껴지는 순간은 대부분 작업이 끝난 뒤입니다. 대본 전체를 붙여 넣고, 앞 두세 파트를 확인합니다. 요청한 대로 나왔습니다. 그 상태로 넘깁니다.

그러다 전체를 다시 읽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뒤쪽 파트로 갈수록 문장이 길어지고, 쓰지 말라고 했던 예고형 표현이 다시 등장해 있습니다. 수정 요청을 다시 보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는 대화창이 이미 길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수정 요청을 넣어도 다시 밀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여는 것이 빠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다시 열면 다시 리셋됩니다. 이 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프롬프트 방식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이 현상이 나타나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Context Drift가 드러나는 세 가지 상황

- 한 대화창에서 주고받은 분량이 많아질 때
- 하나의 결과물을 여러 파트로 나눠 이어서 요청할 때
- 대화창을 새로 열고 같은 작업을 이어갈 때

증상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앞부분은 요청한 대로 나왔는데 뒤로 갈수록 문장이 길어집니다. 쓰지 말라고 분명히 적어 둔 표현이 후반부에 다시 등장합니다. 화자의 말투가 중간부터 미묘하게 달라지고, 결말의 분위기가 처음 요청한 방향과 어긋납니다.

특히 후반부 품질 저하는 발견 자체가 늦습니다. 앞부분을 읽고 만족한 뒤 그대로 넘겼다가, 나중에 전체를 다시 읽으면서 뒤쪽이 무너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시점에는 이미 수정 비용이 커진 상태입니다.

세 번째 한계는 혼자 작업할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프롬프트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때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프롬프트는 입력하는 사람의 습관에 따라 앞뒤 문장이 달라지고, 어느 시점에 무엇을 덧붙이는지도 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파일을 공유했는데 결과물의 톤이 서로 다릅니다.

이 문제는 작업을 나누려는 순간 곧바로 드러납니다. 파일을 넘기는 것만으로는 작업 방식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옆에 앉아 설명하거나, 넘어온 결과물을 내가 다시 고치게 됩니다. 혼자 할 때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상황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세 가지 한계는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원인은 하나입니다. 프롬프트는 매번 새로 입력되는 일회성 명령이고, 어디에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프롬프트를 더 길고 더 정교하게 만드는 방향은 어떨까요. 직관적으로는 옳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조건을 빠짐없이 적어 두면 결과가 안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방향은 앞의 세 가지 한계 중 어느 것도 없애지 못합니다.

프롬프트가 두 배로 길어져도 세션이 끝나면 여전히 사라집니다. 길어진 만큼 대화 후반부에서 밀려나는 내용도 함께 늘어납니다. 사람마다 입력 방식이 다르다는 문제 역시 그대로 남습니다. 길이를 늘리는 것은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식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규칙이 늘어날 때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요청 안에 지켜야 할 조건이 수십 개 쌓이면, AI는 그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조건은 지켜지고 어떤 조건은 무시되는데, 그 선택이 매번 달라집니다. 조건을 늘렸는데 결과가 더 불안정해지는 경험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프롬프트의 품질 문제가 아닙니다. 방식 자체의 구조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구조에서 나온 문제는 같은 구조 안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AI는 내 채널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가장 자주 쓰이는 요청 중 하나가 "내 채널처럼 써줘"입니다. 짧고 편한 요청이고, 사람에게라면 충분히 통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AI에게 이 요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AI는 내 채널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 온 손님이 식당에 앉아 "늘 먹던 걸로 주세요"라고 말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주방은 성의가 없어서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손님이 무엇을 늘 먹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가장 많이 팔리는 메뉴가 나옵니다. 무난하지만, 손님이 원한 그 맛은 아닙니다.

AI가 하는 일도 정확히 이것입니다. 요청이 모호할수록 AI는 자신이 학습한 평균치를 출력합니다. AI는 수많은 대본과 글을 학습했기 때문에, 무엇을 요청받아도 그럴듯한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다만 그 결과는 내 채널의 평균이 아니라 세상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읽었을 때의 느낌이 늘 비슷합니다. 틀린 곳은 없는데 내 것 같지 않습니다. 문장은 매끄럽고 구조도 무난한데, 내 콘텐츠 사이에 끼워 넣으면 이질감이 남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어디를 고쳐 달라고 말해야 할지 애매합니다. 결국 "좀 더 우리 느낌으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라는 요청을 반복합니다. 이 말은 AI에게 아무 정보가 아니므로, 돌아오는 결과도 방향 없이 달라집니다. 수정 횟수는 늘어나는데 결과물이 원하는 지점에 가까워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관점을 한 번 바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AI의 능력 문제로 다뤄 왔다면, 실제로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내가 AI에게 내 채널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알려주지 않은 정보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 온 셈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려줘야 하는지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AI가 원래 알 수 없는 것들

- 내 콘텐츠의 문장이 어떤 말투로 끝나는지
- 절대 쓰지 않는 표현이 무엇인지
-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화자가 어떤 사람인지
- 감정을 어디까지 드러내고 어디에서 멈추는지

이 네 가지가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AI가 만들어 내는 결과물의 느낌은 구체적입니다. 말투를 알려주지 않으면 문장 끝이 매번 달라집니다. "~습니다"로 끝나다가 "~입니다"가 섞이고, 어느 파트에서는 "~요"로 끝납니다. 하나의 대본 안에서 화자의 말투가 조금씩 흔들립니다.

금지어를 알려주지 않으면 특정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다가, 열 편쯤 쌓였을 때 모든 대본에 같은 표현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표현이 AI가 선호하는 평균적인 유튜브 대본 문체의 흔적입니다.

페르소나를 알려주지 않으면 화자가 없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내용은 맞는데 누가 말하는지 모르는 느낌입니다. 독자에게 말을 거는 것인지, 독자에 대해 설명하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내 채널의 목소리가 없는 상태에서 AI는 가장 무난한 나레이션 톤을 선택합니다.

감정의 온도를 알려주지 않으면 파트마다 온도가 달라집니다. 앞 파트는 건조한데 뒤 파트는 갑자기 감정적이거나, 전체 흐름에 맞지 않게 한 문장만 과장됩니다. 어느 한 파트만 따로 읽으면 괜찮은데, 전체를 이어 읽으면 분위기가 들쑥날쑥합니다.

이 항목들이 비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이미 경험해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투를 알려주지 않으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무난한 나레이션 문체가 나옵니다. 쓰지 않는 표현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화자를 알려주지 않으면 목소리 없는 설명문이 되고, 감정의 폭을 알려주지 않으면 지나치게 담담하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문장이 섞입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한 번도 문장으로 적어 본 적이 없을 뿐입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기준은 매번 다른 말로 표현되고, 매번 다른 말로 표현된 기준은 매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질문은 여기에서 하나로 좁혀집니다. 더 좋은 프롬프트를 찾는 것과, AI에게 내 채널의 기준을 알려주는 것은 전혀 다른 접근입니다. 지금까지 해 온 시도는 대부분 앞쪽이었습니다. 이 책이 확인하려는 것은 뒤쪽에 무엇이 필요한가입니다.

1장 마무리

이번 장 핵심 정리

프롬프트의 문제는 품질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세션이 끝나면 리셋되고, 대화가 길어질수록 초반 규칙이 희석되며, 사람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AI는 내 채널을 모릅니다. 내가 정의하지 않으면 세상의 평균값이 출력됩니다.

더 좋은 프롬프트를 찾는 방향으로는 이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길이를 늘리는 것은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장 결과물

생각: 지금까지 반복된 결과물 불일치의 원인이 프롬프트의 품질이 아니라 방식의 구조였다는 인식

행동: 지금 쓰고 있는 프롬프트를 새 대화창에 그대로 입력해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 보고,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스스로 점검할 질문

1. 지금 내가 쓰는 프롬프트는 새 세션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주고 있습니까?
2. 다른 사람이 같은 프롬프트로 작업했을 때 내 결과물과 달라집니까?
3. AI가 반복해서 내는 실수의 패턴을 지금 말할 수 있습니까?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내 방식을 직접 진단해 볼 차례입니다.

문제를 아는 것과 내 작업 안에서 그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2장. 내 AI 활용 방식을 직접 진단한다

지금 내 방식의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는가

1장에서 확인한 것은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프롬프트는 세션이 끝나면 사라지고, 대화가 길어지면 처음의 규칙이 희석되며, 사람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이것은 프롬프트의 품질과 무관한, 방식 자체에 내재된 특성입니다.

그런데 구조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과, 그 문제가 지금 내 작업 방식의 어느 지점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무엇이 필요한지 보입니다.

아래 세 가지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오늘 새 대화창을 열고, 어제 쓴 프롬프트를 그대로 붙여 넣었습니다. 어제와 결과가 같습니까? 말투의 리듬, 문장이 끝나는 방식, 화자의 온도가 어제와 동일한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만약 다르다면, 어제 좋았던 결과는 프롬프트의 힘이 아니라 그 대화 안에서 수정을 반복한 결과였습니다. 세션이 바뀌는 순간 그 과정은 사라집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한 대화창에서 대본을 여러 파트로 나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앞부분 두세 개 파트를 확인하고 만족한 뒤, 나머지를 나중에 읽었을 때 뒤로 갈수록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든 적이 있습니까? 문장이 길어지거나, 처음에 잡아 놓은 말투가 미묘하게 흐트러지거나, 하지 말라고 했던 표현이 다시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초반 규칙이 밀리는 현상이 이미 내 작업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같은 프롬프트 파일을 팀원이나 다른 외부 협력자에게 넘긴 적이 있습니까? 결과물을 받았을 때 내가 만든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까? 말투의 방향은 맞는데 세부 호흡이 달랐거나, 표현 방식이 조금씩 어긋났거나, 특정 표현이 반복적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았습니까? 프롬프트는 파일로 공유되지만, 그것을 입력하는 사람의 방식까지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파일로 시작해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이 문제가 불편한 이유는 결과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파일을 받아 보면 틀린 곳은 없습니다. 말투의 방향은 맞고, 내용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든 것과 나란히 놓으면 미묘하게 다릅니다. 어디가 다른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받은 파일을 직접 고치거나, 옆에서 설명하며 다시 만들게 됩니다. 혼자 할 때보다 시간이 더 걸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프롬프트 파일에는 결과물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프롬프트로 내가 어떻게 입력했는지, 어떤 순서로 어떤 말을 덧붙였는지, 어느 지점에서 수정을 요청했는지가 없습니다. 파일을 공유해도 작업 방식은 공유되지 않습니다. 같은 파일, 다른 결과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이미 프롬프트 방식의 구조적 한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이 내 작업 안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다릅니다. 방금 확인한 것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적 한계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지금 바로 실습 하나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접 체험하기 - LLM 지침 체험

이 실습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프롬프트만 입력했을 때와 LLM 지침을 적용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읽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행하고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표: 프롬프트 방식과 지침 방식의 결과 차이를 같은 조건에서 직접 비교합니다.

준비: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등 본인이 평소 즐겨 사용하는 생성형 AI 도구에 접속합니다. 지금 사용 중이신 도구를 그대로 활용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1단계 - 프롬프트만으로 요청하기

지금 바로 실행합니다. 생성형 AI 도구에서 새 대화창을 열고 아래 문장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유튜브 대본 도입부를 한 단락 써줘. 주제는 “직장인이 퇴근 후 유튜브를 보는 이유”야.

결과물이 나오면 잠시 화면에 두고 아래 예시와 비교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이와 비슷한 방향의 결과가 나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직장인들이 지친 하루를 마치고 유튜브를 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이 퇴근 후 유튜브를 즐겨 보는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결과의 특징을 확인해 보십시오.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라는 질문형 도입, “오늘은”으로 시작하는 문장, “알아보겠습니다”로 끝나는 예고형 마무리.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이 구조가 수많은 유튜브 대본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AI가 학습한 대본들의 공통값이 그대로 출력된 것입니다.

이 결과를 기억해 둡니다. 곧 다른 결과와 나란히 놓게 됩니다.

2단계 - 지침을 등록한 뒤 같은 요청하기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프롬프트를 입력하기 전에, 먼저 AI에게 일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이 지침입니다.

지금 바로 실행합니다. 사용하는 도구에 따라 아래 방법으로 지침을 등록합니다.

챗GPT를 사용한다면: 왼쪽 사이드바에서 프로젝트(Project) 를 선택하고 새 프로젝트를 만든 뒤, 프로젝트 지침(Project Instructions) 입력란에 아래 지침을 붙여 넣습니다.

클로드를 사용한다면: 왼쪽 사이드바에서 프로젝트(Project) 를 선택하고 새 프로젝트를 만든 뒤, 프로젝트 지침(Project Instructions) 입력란에 아래 지침을 붙여 넣습니다.

제미나이를 사용한다면: 왼쪽 사이드바에서 Gems를 선택하고 새 Gem을 만든 뒤, 요청 사항 입력란에 아래 지침을 붙여 넣습니다.

붙여 넣을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신은 직장인 시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유튜브 채널의 나레이터입니다. 이 채널의 화자는 설명하거나 안내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청자 옆에서 함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세 가지 표현은 이 채널에서 절대 등장하지 않습니다. 첫째, “오늘은”, “이번에는”, “지금부터”로 시작하는 문장. 둘째, “~해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형태의 예고형 표현. 셋째, “~않으신가요”, “~있으신가요” 형태의 질문형 도입.

지침 등록이 완료되면, 새 대화창을 엽니다. 반드시 새 창이어야 합니다. 지침이 적용된 상태에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 창에서 1단계와 동일한 요청을 입력합니다.

유튜브 대본 도입부를 한 단락 써줘. 주제는 “직장인이 퇴근 후 유튜브를 보는 이유”야.

결과물이 나오면 1단계 결과와 나란히 놓고 읽어 봅니다. 아래 예시와 비교해 보십시오.

퇴근하고 현관문을 닫는 순간, 대부분의 직장인은 폰을 꺼내 유튜브를 켭니다. 뭔가를 배우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틀어두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내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했던 사람이, 퇴근 후에 고르는 건 자기가 듣고 싶은 목소리입니다.

3단계 - 두 결과를 나란히 놓고 확인하기

두 결과물을 비교합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첫 문장의 시작 방식입니다. 1단계 결과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으로 시작하고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로 끝났습니다. 2단계 결과는 "퇴근하고 현관문을 닫는 순간"으로 바로 장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질문형 도입이 사라진 자리를 장면 묘사가 채웠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문장의 방향입니다. 1단계 결과는 "알아보겠습니다"로 앞으로 할 이야기를 예고했습니다. 2단계 결과에는 예고가 없습니다. 이미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자의 위치입니다. 1단계는 안내자가 앞에서 설명합니다. 2단계는 누군가 옆에서 말을 건넵니다. 역할 정의 한 줄이 대본 전체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두 결과의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생각보다 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크게 느껴진다면, 금지어 세 가지와 역할 정의 한 줄만으로도 결과물의 첫 인상이 바뀐다는 것을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작게 느껴진다면, 그 차이가 말투 정의, 페르소나, 감정 온도까지 추가될 때 어떻게 누적되는지를 Edition 1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4단계 - 이 체험에서 확인한 것

지금 방금 경험한 것의 구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프롬프트는 매 대화창에 입력되는 일회성 명령입니다. 지침은 대화창을 열기 전, 도구 안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프롬프트를 넣기 전부터 AI는 지침을 읽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프롬프트는 세션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지침은 저장되어 있습니다. 내일 새 대화창을 열어도, 다음 주에 열어도, 지침이 등록된 상태라면 AI는 같은 조건에서 시작합니다. 매번 처음부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체험한 지침에는 역할 정의와 금지어만 있었습니다. 말투 정의, 페르소나, 감정 온도, 호칭 체계는 아직 없습니다. 이것들이 추가될수록 AI가 내 채널을 모르는 상태에서 출력하는 평균값이 끼어들 자리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채우려면 그전에 내 채널이 무엇인지를 내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지침에 담을 내용은 AI가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내 채널의 기준을 문장으로 정리한 곳에서 나옵니다. 이 부분은 에필로그에서 이어집니다.

2장 마무리

이번 장 핵심 정리

문제가 내 작업의 어느 지점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는 직접 확인해야 보입니다. 세션이 바뀔 때, 대화가 길어질 때, 사람이 달라질 때, 이 세 지점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구조적 한계 안에 있습니다.

지침은 AI에게 일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환경입니다. 프롬프트와 달리 도구 안에 저장되어, 대화창을 열기 전부터 준비됩니다. 역할 정의와 금지어만으로도 결과물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방금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역할 정의와 금지어는 지침의 시작입니다. 내 채널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수준은 이보다 훨씬 구체적인 작업에서 나옵니다.

이번 장 결과물

1단계 결과물과 2단계 결과물을 나란히 두고, 달라진 부분 세 가지를 메모합니다. 이것이 이번 장의 실습 산출물입니다.

스스로 점검할 질문

지금 AI에게 내 채널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 채널에서 AI가 반복적으로 쓰는 표현 중 쓰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세 가지 말할 수 있습니까?

지침에 역할 정의와 금지어만 있다면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습니까?

에필로그로 넘어가기 전에

진단을 마쳤고, 지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체험한 것은 시작점이었습니다.

내 채널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완성형 지침을 만들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지, 그 전체 구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에필로그

방금까지 두 가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1장에서는 프롬프트가 왜 매번 달라지는지를 봤습니다. 세션이 끝나면 리셋되고, 대화가 길어지면 초반 규칙이 밀리고, 사람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이것은 프롬프트를 더 잘 쓰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2장에서는 그 구조적 한계가 지금 내 작업의 어느 지점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지침이라는 다른 방식으로 같은 요청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경험했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방금 체험한 예제는 역할 정의 1줄과 금지어 3개였습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확인했지만, 그것이 내 채널 고유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남습니다. 말투는 어떻게 정의하는지, 페르소나는 어떻게 만드는지, 감정의 온도는 어떻게 문장으로 쓰는지가 아직 없습니다.

AI에게 지침을 전달하려면, 그 전에 내 채널이 무엇인지를 내가 먼저 정의해야 합니다. 지침에 담을 내용은 AI가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내 채널의 기준을 문장으로 정리한 문서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채널 톤앤매너 기준서라고 합니다.

지침을 만들기 전에 기준서가 필요하고, 기준서를 쓰려면 내 채널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채널 톤앤매너 기준서, 마스터 LLM 실행 지침, 콘텐츠 제작 워크시트.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직접 설계하고 완성하는 전체 과정을 담은 것이 Edition 1입니다.

지금 체험한 것이 시작점이었다면, Edition 1은 그것을 내 채널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완성형 시스템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 https://litt.ly/ainote

부가 정보

AI-NOTE 저자 소개

본 전자책의 저자, 오답노트는 온라인 마케팅과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직접 실험하고 기록해 온 실전 노트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1인 지식 창업가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과정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프롬프트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실패하고, 수정하고, 다시 만드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오답노트는 그 과정에서 쌓은 기록과 기준을 정리해왔고, 이 책은 그중 첫 번째 결과물입니다.

오답노트가 쌓아온 모든 기록과 경험은 **AI-NOTE**라는 이름으로 정리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에디션과 시스템으로 계속 확장될 예정입니다.

▶ AI-NOTE 공식 채널 https://litt.ly/ainote

▶ 블로그 https://blog.naver.com/the-ai-note

▶ 이메일 이메일 ai.note.port@gmail.com

저작권 및 법적 고지

본 전자책에 포함된 모든 콘텐츠(텍스트, 프롬프트, 템플릿, 이미지, 구성 구조 포함)의 저작권은 AI-NOTE에 귀속됩니다.

본 도서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작성자의 서면 동의 없이 본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배포·전송하거나 2차적 저작물로 재편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전자책 다운로드 및 열람은 위 고지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Copyright © 2026 AI-NOTE. 오답노트. All rights reserved.

고유코드: publish-freever1.pdf